

▶ '오징어게임 백라스타 정호연 인터뷰' 1면에서 이어집니다

- 덕분에 과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도수코) 출연 영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수줍지 않은가. 연기자로 단박에 주목받는 건 섭섭할 법도 하다.

"수줍은 건 맞고, 섭섭한 건 틀리다. 많은 경험을 통해 변화해가는 것 같다. '도수코' 때엔 승부욕이 컸고, 경쟁심이 강했다. 이겨야 했으니까, 이후 일하면서 마냥가지였다. 엄청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그동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일해 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배웠다."

● "남을 위해 살고 싶은 내 다음 스텝은?"

정호연은 욕심을 내는 듯하다가도 겸손해졌다. 겸손한 듯하다가도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겸손은 신인 연기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중압감과 닮은 부담감일 수도 있겠다. 욕심은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연기의 길에 대한 희망처럼 들려왔다.

- 연기 데뷔 이전에 상상했던 연기와 실제 연기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같았던 건 하나도 없다. 생각한대로 되는 것도 없었다. 초반에는 더더욱.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연출자 황동혁 감독에게 밥을 먹자 했다. 난 무슨 얘길 하자고 만난 건지 모르겠는 상황에 황 감독은 '넌 새벽(극중 캐릭터)이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다. 용기를 얻었다. 불안함이 조금은 해소됐다."

- 이후 연기자로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새로운 작업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연기로는 부족한 게 많아 더 발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 아직 자신 있게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도 없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역할은 많고 다양하다."

그러면서 정호연은 자신의 말대로 "많고 다양"한 작품 속 여성 캐릭터를 줄줄 읊었다. '말콤과 마리의' 제네이아 풀먼을 비롯해 '킹덤'의 배나, '인간살인'의 박주현, '스킨 갱'의 에이나 테일러 조이... 그만큼 또 "많고 다양"한 인물을 봤다 말하고 있었다. 캐릭터의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보며 마치 실제 그인 것처럼 처절한 마음으로 일기를 썼던 그를 '준비된 연기자'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정호연은 '오징어게임'의 새터민 소녀를 만나고 나서 "남을 위하는 삶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 가는 듯"하다는 부연도 따랐다. 굳이 그러라고 누구도 떠밀지 않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다, 그러고 싶다'는 표정이 묻어났다. "모두 신나게 저의 다음 스텝을 기대해볼까요? 하하!"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구매금액은 10만원 이하
구매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983 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1년 10월 02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3 23 26 31 35 43	15

1등 총 당첨금: 2,503,422,225 원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0	2,503,422,225 원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78	53,491,928 원
3등 5개 숫자 일치	2,640	1,580,444 원
4등 4개 숫자 일치	131,780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2,196,308	5,000 원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년 및 10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정수론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선금 복권 구매는 중독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당첨금 지급: 해당 회차 지급시로부터 1년까지

소집훈련 벤투호, 7일 시리아·12일 이란전

EPL 흔든 손-황, 지옥의 2연전을 부탁해!

〈손흥민〉 〈황희찬〉

손흥민, 애스턴빌라전 선제골 AS 황희찬, 뉴캐슬전 멀티골 완벽 활약 물오른 페이스 대표팀서 공유 기대 시차적용 2차례... 컨디션 관리 관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간이 또 왔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대표팀은 시리아(7일 오후 8시·안산)~이란(12일 오후 10시30분·테헤란)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을 앞두고 4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이라크~레바논과 9월 홈 2연전에서 1승1무로 절반의 성공에 그친 대표팀은 홈~원정으로 이어지는 10월 일정을 통해 '아시아 호랑이'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특히 주장 손흥민(29·토트넘)과 황희찬(25·울버햄턴)의 최근 기세가 든든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나란히 활약 중인 공격 콤비는 대표팀의 화력을 책임질 전망이다.

분위기가 좋다. 손흥민은 4일(한국 시간) 끝난 애스턴빌라와 2021~2022시즌 7라운드 홈경기(2-1 승)에서 전반 27분 호비비에르의 선제골을 도왔다. 앞서 리그 3골,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 도움 1개를 찍은 그의 시즌 공격 포인트는 5개가 됐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상대 수비수 몇 타깃의 자책골에도 관여하며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울버햄턴으로 임대 이적한 황희찬의 퍼포먼스도 눈부시다. 2일 뉴캐슬과



토트넘 손흥민(위)과 울버햄턴 황희찬은 7일 시리아, 12일 이란과 치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에서도 중책을 맡아야 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았던 분위기를 대표팀으로 끌고 오는 것이 관건이다.

7라운드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 2-1 승리에 앞장섰다. 올 시즌 3승4패의 울버햄턴이 뽑은 5골 중 황희찬이 3골을 책임졌다. 손흥민이 해리 케인

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듯, 황희찬도 라울 히메네스와 환상적 호흡을 보여줬다. 영국 언론도 코리안 듀오를 칭찬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순위	국가	승-무-패	득점	실점	승점
1	이란	2-0-0	4	0	6
2	한국	1-1-0	1	0	4
3	UAE	0-2-0	1	1	2
4	시리아	0-1-1	1	2	1
5	레바논	0-1-1	0	1	1
6	이라크	0-1-1	0	3	1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일정 및 결과

날짜	상대	홈·원정(결과)	득점자
2021.9.2	이라크	홈(0-0 무)	
9.7	레바논	홈(1-0 승)	권창훈
10.7	시리아	홈	
10.12	이란	원정	
11.11	UAE	홈	
11.16	이라크	원정	
2022.1.27	레바논	원정	
2.1	시리아	원정	
3.24	이란	홈	
3.29	UAE	원정	

는 데 인색하지 않다. 공영방송 BBC는 '금주의 팀'에 손흥민(왼쪽 원어)과 황희찬(스트라이커)을 나란히 선정했다. BBC는 "울버햄턴은 히메네스의 확실한 파트너를 찾았다", "손흥민은 중요한 어시스트로 능력을 보였다"고 각각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를 대표팀으로 끌고 와야 한다. 팀포가 빠르고 거친 EPL에서 갈고 닦은 기량과 자신감을 태극전사들과 공유해야 하고, 상대의 집중견제를 피해 결과를 내야 한다. 황희찬은 "최종예선은 결과로 말한다"며 단단한 의지를 보였다.

컨디션 관리가 변수다. 홈경기 직후 이란 원정이다. 시차적용만 2차례다. 9월 리듬이 깨져 크게 고생한 터라 더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팀은 맞춤형 컨디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황희찬은 소집 첫날 파주 NFC에 입소했지만 손흥민은 5일 합류한다.

▶관련기사 6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SM 이수만,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무더기 설립 의혹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집중 보도 SM 관련 법인 8곳·차명 설립 5곳 '실제 소유자' 정보 담긴 문서 확보 SM측 전면 부인... "법적대응 할 것"

그룹 엑소, 소녀시대 등이 소속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M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4일 '조세회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이라는 제목으로 '케이(K)팝 대부 이수만 관련 홍콩 페이퍼컴퍼니 무더기 발견', '이수만과 유행법인의 말리부 별장 매매 풀리보' 등 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회(ICJ)가 전 세계 117개국 150개국 언론사와 진행한 탐사취재를 통해 각국의 정치인과 종교지도자, 연예인 등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하며 이같은 보도를 내놨다.

매체는 홍콩의 한 회계법인에서 유출된 고객 관리 파일을 바탕으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실제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파일에서 이 총괄프로듀서와 SM 관련 현지 법인 8곳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SM의 해외 계열사 등을 제외한 5곳이 차명 서비스를 통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의 내부 문서에는 이 총괄프로듀서만이 법인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프로듀

서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별장 등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SM 측은 "홍콩 소재 법인은 미국 이민자인 이 총괄프로듀서의 아버지 제임스 회재 리(이회재)씨가 한국에서 보유한 재산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들은 앞서 2014년 국제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 관련 조사, 2015년 검찰 외국환 거래 조사, 2020년 국제청 세무조사에서 다뤄졌던 것이라며 "SM 또는 이 총괄프로듀서의 불법자금으로 설립, 운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오늘 귀국 양현종... KIA와 재회?

12경기 3패만... 빅리그 도전 실패 거액 보상금 타구단 영입 걸림돌 친정팀 KIA 복귀가 가장 현실적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의 2022시즌 유니폼은 무엇일까.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던 양현종이 험난했던 한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다.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다.



양현종

기도 했지만, 곧 다시 메이저리그행을 통

보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최종 성적은 12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자책점(ERA) 5.60이다. 선발로도 4경기에 등판해 중책을 맡기도 했으나, 개인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소화한 이닝은 35.1이닝.

국내로 돌아오는 양현종에게는 뜨거운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는 2020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권리를 행사해 미국무대로 떠났다. 따라서 국내 복귀 시 10개 구단과 모두 FA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역시 친정팀 KIA 타이거즈로 복귀다. 2022 FA 시장에 나오는 양현종은 B등급에 속한다. KIA가 아닌 다른 구단이 양현종을 영입하려면 2020시즌 연봉의 100%와 보상 선수 1명을 KIA에 건네야 한다. 아니면 KIA가 보상선수 없이 2020시즌 연봉의 200%를 택할 수도 있다.

양현종의 2020시즌 연봉은 23억 원이었다. 보상금은 최대 46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양현종 영입에 나설 구단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